

민주광장 - ㉔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공교육의 목적과 지향성은 무엇인가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부류의 학생들을 볼 수 있다. 학업적인 측면에서는 끝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위권 학생들, 학교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모범생들, 학교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사교육에만 의존하는 학생들, 공부에 뜻이 없는 하위권 학생들. 대부분의 학교들은 상위권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고 주로 그들의 성적 추이에 집중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공교육은 무엇이며, 공교육의 역할은 무엇일까.

공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 사회엔 지역별, 소득별 격차 등 여러 격차가 존재하지만, 학업에서의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교육이 존재한다. 적어도 청소년들의 사회인 학교에서는 여러 격차와 상관없이 학업에 접근하는 기회의 평등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집중하

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리가 공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초학력 수준 보장 전까지는 공교육 차원에서의 관리는 필수이며, 이는 곧 공교육의 목적이자 역할이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학력 저하 문제가 심화되자 학업성취도 평가제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공교육 비정상화로 인해 기초학력 차이가 극한치에 이르러 대응 방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학업성취도 평가제는 취지대로 시행된다면 효과적인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험은 오로지 진단평가의 일환으로써 자신의 평소 실력과 대략적인 위치를 점검해볼 기회로 작용하는 시험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며, 학교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공교육의 목적을 이뤄야 할 것이다. 본래 취지인 개인 학력 신장을 돕는 의도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모든 성적에 대한 정보는 학교 차원에서 관리를 목적으로 확인하는 것 외에는 익명성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하며, 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을 위해서 이용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의 취지를 잃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어느 교육정책이나 명과 암이 있다. 하지만 시행되는 교육정책의 도입 취지가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필요한 것이라면, 우려의 목소리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을 잠재켜어 좋은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게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더 나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보다 나은 교육 현실을 위해 여러 교육정책과 함께 학교와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의 나침반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학업성취도 평가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교육제도에 대한 환영 의사를 비치는 이들도 있지만,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제의 개편은 학생들을 서열화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학교별 맞춤형 자율평가라는 말은 사실상 무색하다. 이미 부산의 하운수 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부산 지역의 모든 학교가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성취도평가 성적이 학교 간의 경쟁으로 연결되기 쉽다는 뜻이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만 결과가 공개된다는 안전막이 있다고 해도, 그 실효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성적에 따른 학생들 간의 계급화는 필연적일 것이다.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국가에서 서열화를 조장하는 평가를 부활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결정인가?

또한, 개편된 학업성취도 평가제는 문제풀이식 교육에 치중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학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법, 수학에 거부감 대신 흥미를 느끼는 법, 영어를 언어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법을 학교에서는 가르쳐야 하지 않는가? 덧붙여, 학교는 학력 수준 향상뿐 아니라 성인이 되기 전 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소양을 기르는 장소로 기능해야 한다. 인권 교육 등 현대 사회에 걸맞는 감수성을 위한 교육은 성취도평가의 요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외될 것이다. 구시대적 제도에서 나아가기는커녕 퇴보하는 움직임에

는 반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혹자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확대가 전반적인 학력 수준 신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긍정적 결과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 간 교육 인프라 격차의 완화, 경제적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의 해소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 학생들의 높은 사교육 의존도를 고려했을 때,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는 공교육의 강화가 아닌 사교육의 과열로 이어질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에 지금 필요한 것은 서열 매기기와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을 양성하기 위한 현대적인 감수성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고대인의 서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



현재 사회에서 경쟁은 당연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쟁에서 뒤처지더라도 다음에는 더 나아질 거라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발전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며 자괴감의 굴레에 빠진다.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자신의 꿈을 이루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우울하게 생활하는 사람들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

와세다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이자 일본 정신위생학회의 고문인 가토 다이조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을 ‘열등감’이라 정의하며 〈비교하지 않는 연습〉에서 열등감의 실체를 밝히고 그것을 치유

하는 방법을 서술한다.

〈비교하지 않는 연습〉은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열등감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열등감을 벗어날 수 있는지까지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열등감과 열등함은 다르다. 작가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작가는 열등감과 열등함의 차이를 구분하며, 사람이 느끼는 열등감이 열등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한다. ‘열등하더라도 그것을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은 열등감이 실제 사실이 아닌 상황적인 해석에 달려 있다는 작가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열등감 콤플렉스와 우월감 콤플렉스는 같다.’ 작가는 열등감이 우월감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하게 만들기에 열등감이 더욱 깊어

지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해석에서 나아가 작가는 열등감을 해소하는 방법은 우월해지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사람은 누구나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며 책을 마무리한다.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성취감보다 허탈감이 들었을 때가 있는가? 혹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깎아내릴 때가 있는가? 만일 그렇다 느끼고, 본인이 그것으로 상처받는다면 〈비교하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걸 추천한다.

물론 어느 책이 그렇듯, 이 책 역시 필자의 생각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독자가 책을 읽을 때 필자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책에서 도움이 되는 조언을 얻을 수도 있으니, 필자와의 생각을 비교하며 천천히 자기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박유림(공과대 전기전자22)

퀴즈 - 지우면 보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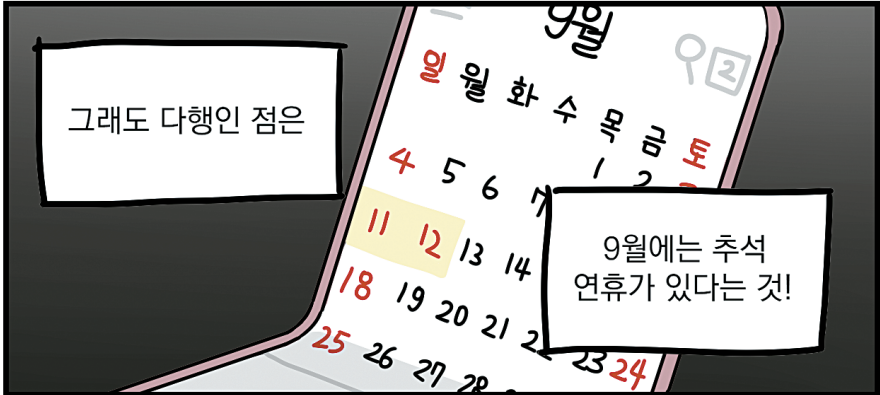


왼쪽 QR코드를 통해 고대신문 페이스북에 접속 후 퀴즈를 풀어주세요. 각 문항의 정답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표에서 지우고 남은 글자를 조합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정답과 이름, 학과, 학번, 전화번호를 기재해 open@kunews.ac.kr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고대신문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2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코드를 전해 드립니다.

민주광장은 하나의 소재에 관한 두 가지 시선을 담아내는 코너입니다.

KUTIME <215화>

김정현 전문기자



고대신문을읽고 1955호(2022년 8월 29일자)

넘치는 의욕만큼이나, 아쉬운 재료 손질

1955호는 한 달 만에 나오는 신문이었다. 시제품 성격이 강한 방학호를 제외한다면, 새 편집국이 제대로 선보이는 ‘첫 작품’이기도 하다. 준비기간이 길었던 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는 게 느껴졌다. 16개의 지면은 데스크의 야심과 기자들의 의욕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보도면에도 짧은 스트레이트가 없다. 기사들을 지면에 꽉꽉 눌러 담은 티가 난다.

사람들과 사진기획은 기획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사람들은 직접 인터뷰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인물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잠재된 기획인 만큼, 앞으로 부고나 전기 성격의 사람들을 더 시도했으면 좋겠다. 지방촌과 사회봉사단을 엮은 사진기획은 학보사 특성상 효과적인 협업이었다. 별개였다면 어딘가 기시감이 드는 사진(쪽방촌)과 단순한 스트레이트(사회봉사단)에 불과했을 두 점을 잘 연결했다.

상찬만 보내고 싶지만, 아쉬웠던 기사들을 짚고 넘어가야겠다. 우선, 그린캠퍼스 기사는 방향이 애매하다. 확실한 노선을 잡았어야 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고려대의 로드맵을 이 기회에 제대로 소개하거나, 그 실효성에 대해 더 날카롭게 비판했어야 했다. 배출량에 비해 탄소를 흡수하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현재 캠퍼스 내 배출되는 탄소를 흡수하는 부가 시설은 전무하다”는 문장 하나로 감음하는 건 역부족 아닐까 싶다. 또한 ‘그린캠퍼스에 대한 구성원 인식이 현저히 낮다’는 소재목은 ‘그린캠퍼스 필요성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인터뷰 제목과 동

어반복이다. 모두의 문제는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듯, 구성원의 인식을 문제 삼는 비판은 너무나 통속하다.

가장 큰 아쉬움을 남긴 기사는 총장 인터뷰다. 물론 ‘발행인’과의 인터뷰가 어땠을지는 대략 짐작이 된다. 이미 조율해둔 질문을 던지면 미리 준비해둔 답변을 읊었을 거다. 하지만 기사는 녹취록과 다르다. 읽기 중 가장 중시한 현안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스마트 캠퍼스 구축, 코로나19 대응, 외부 발전 기금 유치라는 답변을 한 단에 걸쳐 나열한 것은 녹취록에 가깝다. 질문과 답변을 잘게 쪼개 더 짧은 호흡으로 가져가거나, 아예 기사 형식을 달리해야 했다.

한 가지 당부로 마무리하자면, 앞으로는 학기 중에 매주 신문을 내야 한다. 여유는 촉박함애, 의욕은 피곤함에 자리를 내주기에 십상이다. 그 와중에 잃지 말아야 할 건 다음 호는 이번 호보다 더 나은 신문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다. 1955호가 이번 편집국이 만들어낼 최고의 신문이 아닐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민호(경제학과 16학번)

